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이 호 영 (창원대학교)
(hylee@cwnu.ac.kr)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 현황 및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안보환경은 반복된 무력분쟁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확산의 배경은 와하비즘으로 대표되는 급진 이슬람주의 확산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실패이다. 국가실패의 원인은 식민지 지배의 유산으로 현대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능의 마비로 인한 불만과 고통으로 주민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무능과 부패, 경제적 저발전과 빈곤, 정치 사회적 차별과 소외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건설이다. 국가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이슬람 극단주의, 종족분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실패

* 이 논문은 2017/2018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I. 서론

독립 후 최근까지 반복된 무력분쟁이 감소하고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길로 들어서며 발전하던 아프리카 대륙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¹⁾으로 또다시 발전 동력이 단절될 수 있는 위협에 처해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지역 안보 및 세계 안보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며 전통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Goita 2011, 1-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동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동부 사헬지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중동부 아프리카의 그랜드 호수 지역 등 아프리카 서부에서 동부까지 그리고 중앙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 소말리아의 알 샤밥(Al Shabaab), 서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MOJWA: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그리고 말리의 안 사르딘(Ansar Dine) 등이 이 지역의 대표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공격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018년 현재까지 수만 명의 사상자 및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특히 보코 하람의 테러 공격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서정민 2014, 94).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나이지리아에서만 약 20,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보코 하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테러단체로 민간인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하여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테러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알 샤밥도 2007년-2014년 동안 약 4,000명 이상 사망자와 수십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키며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Mark 2018).

아프리카와 국제사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은 아프리카 안보의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중동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슬람 국가(IS) 및 알카에다(Al-Qa'ida)와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조성택·김선정 2015, 151). 아프리카와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대 테러 격퇴 군사작전을 전개하여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을 격퇴하여 확산을 저지하고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과를

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살라피 극단주의 지하디스트, ‘와하비스트’, ‘알카에다’, ‘IS’등 여러 용어들과 혼용되거나 이 용어들이 관련된 어떤 테러 세력으로 이해된다.”(윤민우 2011, 3).

내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작전만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만회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테러 공격을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 테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 그리고 풍선효과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재건을 반복하며 테러 공격을 최근까지 계속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의 잔인한 테러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적 특징과 아프리카의 전통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동국가인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 특징을 배제하고 전체 아프리카적 차원의 분석은 적실성이 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주요 동인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 요인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3장에서 분석한다. 안보환경 변화의 동인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풍습 및 온건 이슬람주의를 밀어내고 급진 이슬람주의가 어떻게 급속도로 확산되었는지 근본적 배경에 대하여 4장에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의 변화

독립 후 현재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은 다음의 두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무력분쟁’²⁾의 악순환이다. 둘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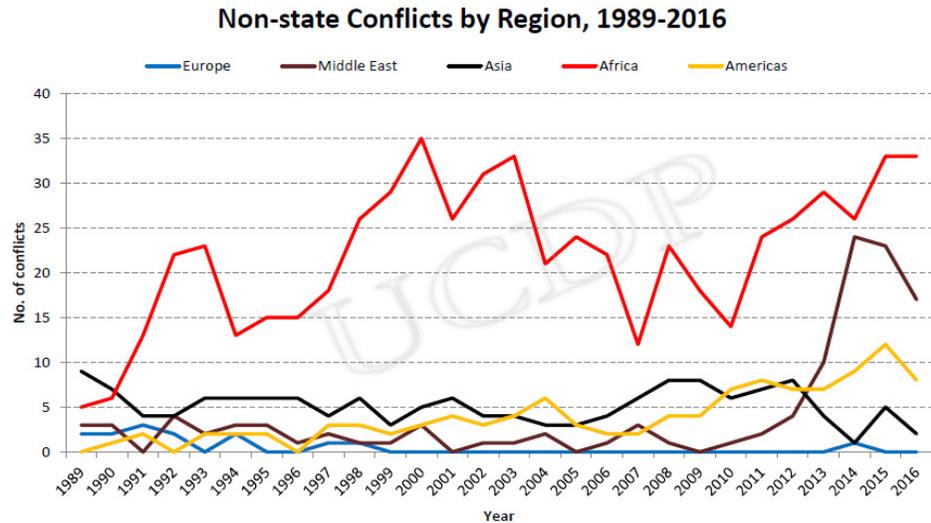
2) ‘무력분쟁’의 정의: “특정 상황이나 무력동원 수준에 따라 분규(dispute), 분쟁(conflict), 전쟁(war)으로 구분하면서도 분쟁을 분규와 무력적 분쟁 또는 전쟁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박명서 2002; 조성택 외 2015, 140 재인용). 여기서는 무력을 동원한 전쟁에

확산이다. 무력분쟁의 악순환은 시기별로 증감이 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안보환경의 대표적 특징이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반복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력분쟁은 아프리카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무력분쟁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에는 더욱 확대되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약 1/3 이상이 무력분쟁의 물결에 휩쓸렸다(김동석 2015, 49). 21세기 들어 확산 추세는 약화되었지만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Elbadawi 외 2000, 244-269).

〈표-1〉을 보면,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다른 지역의 비국가 간 분쟁 발생 건수는 5-10회 미만으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시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9년 5회에서 1992년에 22회로 급증하였으며 2000년에 35회로 최고 발생 횟수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서 2010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29회로 급증하여 2015년 33회로 증가하여 2016년까지 지속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표-1〉 1989-2016 세계 지역별 비 국가 간 분쟁 현황



출처: UCDP(University of UPPSALA,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가까운 모든 분쟁을 통칭하여 '무력분쟁'으로 정의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력분쟁은 근본적으로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지배 후유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종족갈등으로 인한 무력분쟁이다. 둘째, 냉전 시기 아프리카는 미-소의 이념대립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셋째, 탈냉전 시기 이념대립에서 벗어난 아프리카는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집단 간의 권력 쟁취를 위한 갈등으로 오히려 무력분쟁이 급증하였다(김상범 2002, 148). 넷째, 아프리카의 석유나 다이아몬드 등 자원을 둘러싼 무력 분쟁이다(Herbst 2000, 270-294).

이 중 종족갈등으로 인한 무력분쟁은 독립 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다. <표-2>에 의하면 1960년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 국가 중 종족분쟁은 약 13건으로 나타났다(권유경 2014, 182-183). 이 중 나이지리아, 말리, 케냐, 에티오피아 및 토고의 종족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해결된 종족분쟁 중 르완다분쟁과 같이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초래한 분쟁도 적지 않다.

<표-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종족 분쟁 현황(1960-2016)

순번	국가	원인	현황
1	나이지리아	출신지역, 상이한 종교문화, 경제적 이익이 복합적으로 작용	1999년 발생-현재 미 종료
2	말리	중앙 강압정책에 대한 지방부족의 반발	1980년 발생-현재 미 종료
3	케냐	켄야타(Kenyatta)대통령 서거로 그 자리를 승계한 모이(Moi)부족들 간에 발발	1978년 발생-현재 미 종료
4	에티오피아	종족 수성을 무시한 식민종주국의 영토 확정 및 합병에 반발한 종족분쟁	1962년 발생-현재 미 종료
5	토고	카베야(Kabeya)족과 에웨(Ewe)족간 분쟁	1963년 발생-현재 미 종료
6	수단-남수단	북부 이람계 무슬림과 남부 기독교 비무슬림 부족간 분쟁	1983년 발생-현재 종료, 잠재적 재발 가능성 높음
7	차드	남부 기독교계 종족과 북동부 무슬림계 종족간 분쟁	1966년 발생-현재 종료
8	가나	중앙정부와 지방부족 세력인 에웨(Ewe)족간 분쟁	1966년 발생-현재 종료
9	니제르	종족차별에 대한 분쟁	1960년 발생-현재 종료
10	르완다	투치족과 후투족간의 분쟁	1990년 발생-현재 종료
11	부룬디	투치족과 후투족간의 정권 탈취 분쟁	1992년 발생-현재 종료
12	지부티	이싸족 권력집중에 대한 아파르족간 갈등	1991년 발생-현재 종료
13	라이베리아	미국 노예출신 흑인과 원주민 흑인간 갈등	1989년 발생-현재 종료

출처: 권유경(2014, 182-183)의 <표-1>을 보완 제작성

종족분쟁은 아프리카의 다양하고 복합적 분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Kaufmann 1996, 136-175).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가진 부족이 1500개 이상 있다.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종족이 무려 400개 이상 혼재하고 있다. “르몽드 세계사는 ‘아프리카는 종족 자체가 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국가를 만들기도 한다.’”(한국경제신문 2014/01/06)며 “중앙집권정부 형태의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모델은 아프리카에는 맞지 않는 체제라고 분석했다.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아프리카의 종족주의를 악용하여 종족 동원과 분열을 조장하여 부와 정치 권력 그리고 자원을 쟁취하는데 활용하였다.”(Aapengnuo 2010, 1-5).

더욱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의 ‘내적 종족 차별주의’는 식민지 시대 백인들의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하였다.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종족 차별주의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악화시켜 흑인들이 다른 종족에 대하여 가혹한 차별을 자행하는 일도 비밀비재하였다(김현아 2014, 44-46). 이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무력분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그리고 종교적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력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안보환경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새로운 위협에 처해 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 아프리카 서부지역, 나이지리아 북동부 사헬지역, 아프리카 중동부 그랜드 호수 지역을 거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확산되고 있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안보와 아프리카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보코 하람(Boko Haram)’과 소말리아의 ‘알 샤밥(Al-Shabaab)’, ‘서부 아프리카의 지하드 통일운동(MOJWA: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그리고 말리의 ‘안사르딘(Ansar Dine)’ 등이 아프리카의 대표적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다. 이들 중 보코 하람의 테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나이지리아에서만 2018년 현재까지 약 20,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무려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리카 동부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알 샤밥의 공격으로 2007년-2014년 동안 약 4000명 이상이 죽었다(Wilso 2018).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군경보다는 민간인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테러 공격으로 인근 국가들의 지역 안보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알 카에다 및 IS 등과 같은 국제 테러단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Lim 외 2017, 106). 즉,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등과 같이 아프리카 대륙 자체적 대응과 함께 유엔 및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 등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막강한 배후로서 악명을 떨치고 있던 이슬람국가의 중동지역에서 패퇴로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성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Ⅲ.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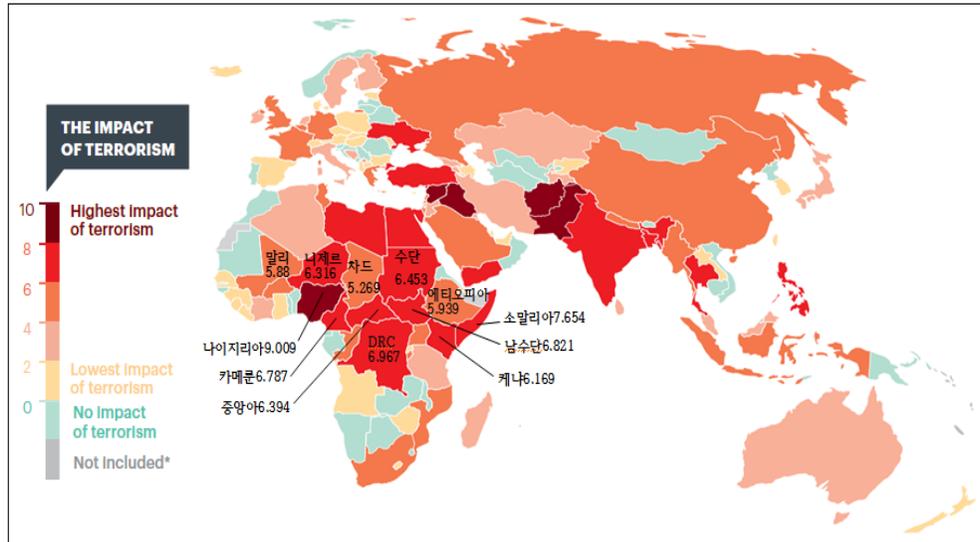
사하라 이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픈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부설 ‘START(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에서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및 평화 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가 발간하는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GTI: Global Terrorism Index)³⁾’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 지도(Global Terrorism Index Map 2017)에 의하면 중남부 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테러리즘 임팩트 지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높은 임팩트 지수인 6-10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9.009), 소말리아 (7.654), DRC(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6.967), 남수단 (6.821), 카메룬 (6.787), 수단 (6.45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394), 니제르 (6.316), 케냐 (6.169) 등이다. 이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로 테러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 특히 임팩트 지수 7 이상인 나이지리아(9.009)와 소말리아(7.654)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가 큰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팩트

3) GTI의 임팩트 지수는 GPI(Global Peace Index) 전문가 패널의 검토에 의하여 작성된 지수다. 0-10 범위로 분류하며 임팩트 지수 0은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임팩트 지수 10은 테러리즘에 의한 측정 가능한 피해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Global Terrorism Index 2017, 6).

지수인 5 이상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5.939), 말리 (5.88), 부룬디 (5.637), 차드 (5.269) 등이다. 이와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그림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 지도(Global Terrorism Index Map 2017)



출처: GTI 2017의 ‘글로벌 테러리즘 인덱스 지도(Global Terrorism Index Map 2017, 11)에 GTI 임팩트 지수를 더하여 재구성

〈표-3〉 2002년-20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GTI 임팩트 지수 순위 및 변동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4개 국가 중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세네갈, 기네, 시에라리온, 짐바브웨, 앙골라, 라이베리아, 기네비소,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감비아, 잠비아 등 14개 국가의 GTI 임팩트 지수가 향상되었다. 베냉, 보츠와나,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가봉,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토고 등 9개 국가의 GTI 임팩트 지수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DRC, 남수단,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케냐, 에티오피아, 말리, 부룬디, 차드,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콩고공화국, 코트디브아르, 마다가스카르, 지부티, 레소토, 가나 등 21개 국가의 GTI 임팩트 지수는 악화되었다(Global Terrorism Index 2017, 46). 아프리카 남부지역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남아공 등 3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부 아프리카 지역부터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GTI 임팩트 지수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하라 이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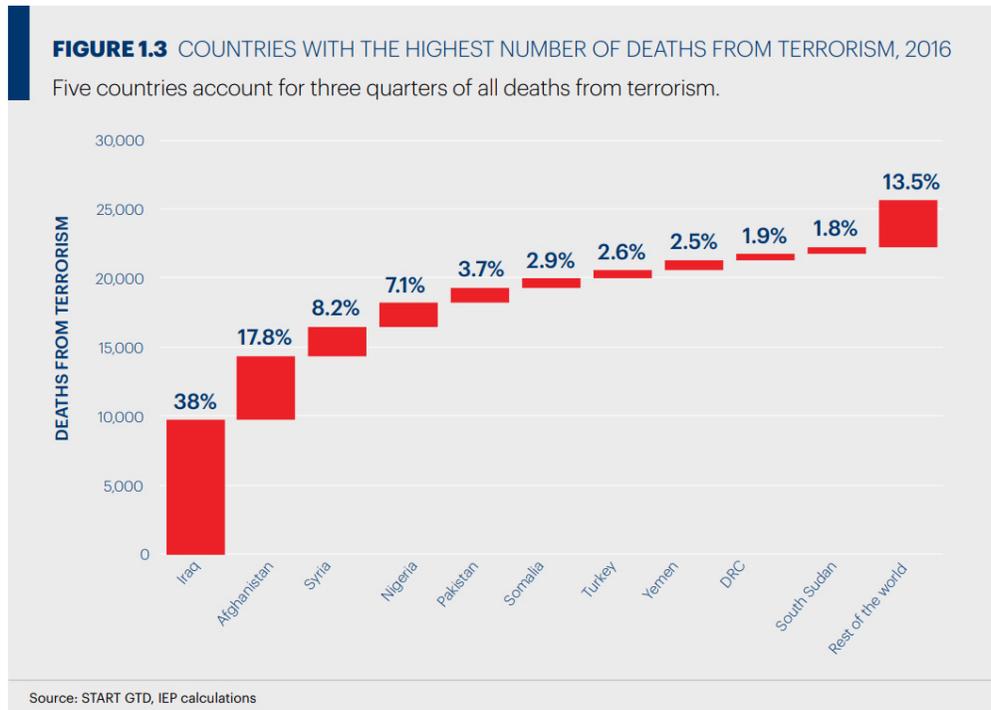
〈표-3〉 2002-20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GTI 임팩트 지수 순위 및 변동표

COUNTRY	SCORE	GLOBAL RANK	CHANGE IN SCORE	COUNTRY	SCORE	GLOBAL RANK	CHANGE IN SCORE
Nigeria	9.009	3	5,491	Djibouti	1,119	96	1,119
Somalia	7,654	7	4,571	Guinea	0,723	101	-3,502
DRC	6,967	13	2,898	Sierra Leone	0,667	102	-3,209
South Sudan	6,821	14	6,821	Lesotho	0,384	109	0,384
Cameroon	6,787	15	6,739	Ghana	0,326	111	0,326
Central African Republic	6,394	19	6,394	Zimbabwe	0,202	116	-3,054
Niger	6,316	20	6,047	Angola	0,154	117	-6,228
Kenya	6,169	22	1,521	Liberia	0,125	120	-1,921
Ethiopia	5,939	24	4,552	Guinea-Bissau	0,038	128	-0,039
Mali	5,88	25	5,88	Benin	0	134	0
Burundi	5,637	28	0,124	Botswana	0	134	0
Chad	5,269	34	4,258	Equatorial Guinea	0	134	0
Mozambique	4,882	39	4,796	Eritrea	0	134	0
Burkina Faso	4,52	43	4,52	Gabon	0	134	0
Uganda	4,319	45	-1,368	Malawi	0	134	0
South Africa	4,092	47	0,997	Mauritania	0	134	0
Republic of the Congo	4,04	48	0,357	Mauritius	0	134	0
Cote d'Ivoire	3,701	54	1,022	Namibia	0	134	-2,756
Tanzania	3,413	59	-0,192	Swaziland	0	134	-0,125
Madagascar	3,287	62	1,817	The Gambia	0	134	-0,077
Rwanda	1,929	81	-0,44	Togo	0	134	0
Senegal	1,795	84	-1,889	Zambia	0	134	-1,567

출처: GTI(2017, 46)

〈표-4〉 '2016 테러리즘에 의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리스트'에 의하면 2016년 테러리즘에 의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10대 국가에 나이지리아(7.1%), 소말리아(2.9%), 콩고민주공화국(DRC)1.9%), 남수단(1.8%) 등 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테러리즘에 의한 총사상자 수의 3/4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5개 국가에서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나이지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표-4〉 2016 테러리즘에 의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리스트



출처: GTI(Global Terrorism Index, 2017, 16)

특히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빈번한 테러 공격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로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피해를 제일 심각하게 당한 국가다. GTI 에 의하면 2002년-2016년 동안 테러 공격으로 35,5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전체 사상자의 65%, 테러 공격 횟수의 7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나이지리아 인근 국가인 니제르와 차드는 한 번의 테러 공격에 의한 평균 사망자 수가 11-12명으로 나이지리아의 평균 6명, 소말리아의 평균 2명보다 거의 몇 배나 더 많아 죽음의 국가로 불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Global Terrorism Index 2017, 46).

서부 아프리카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보코 하람은 이슬람국가, 알 카에다, 탈리반(Taliban)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4대 테러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Global Terrorism Index 2017, 72). 보코 하람은 이슬람 수니 지하디스트 집단으로 이슬람국가의 서부 아프리카 지부로 알려져 있다. 초기 보코 하람은 알 카에다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지원받으며 활동하였으나 2014년부터 외부 지원 세력을 알 카에다에서 이슬람국가로 변경하였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1-2). 특히 보코 하람은 서구의 교육과 여성에 대한 교육은 이슬람의 순수한 가르침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원천이라 선언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테러를 집중하였다. 2014년에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치북 여학생 276명 납치와 2018년 2월 요베주 다프치 여학생 기숙사를 공격하여 여학생 110명 납치(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8, 1-3) 그리고 2009년 이후 2,295명의 교사를 살해하였으며 1,400개 이상의 학교를 파괴하였다(한국일보 18/04/28). 보코 하람의 테러 공격은 2016년-2017년 동안 아프리카 연합군의 대 테러진압 합동 공격으로 그 세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나 2018년 들어 수십 건의 보코 하람의 테러 공격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대표 집단인 알 샤밥은 1980년대 중반에 조직된 소말리아 이슬람연합체 'Al Ittihad Al Islami'와 2000년대 중반 '이슬람 법정연합(TIU: Tribunaux islamique unis)'⁴⁾의 후신이다. 이슬람 법정연합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대부분을 점령하여 통치하였으나 에티오피아의 군사개입으로 무력화되어 흩어진 조직원들 중 강경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가 알 샤밥이다. 알 샤밥은 소말리아를 넘어 케냐와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족의 영토를 통일한다는 범 지역주의적이고 민족통일주의적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알 샤밥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욱 폭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투쟁을 천명한 새로운 이슬람주의를 천명하고 소말리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를

4) TIU(Tribunaux Islamique Unis): 소말리아는 1991년 이후 20년간 내전의 와중에 이슬람적 질서회복을 위해 이슬람 법정연합이 출범하였다.

주요 공격수단으로 활용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Ostebo 2012, 3). 또한 국제테러 집단인 알 카에다와 알 샤밥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 정부군과 아프리카 연합군(AMISOM: 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의 공격으로 알 샤밥이 점령하고 있던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어 그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다(김은경 2017, 3-4).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의 과시와 주민들의 정부군에 대한 협조를 막기 위해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습적인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MOJWA: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이하 MOJWA)과 말리의 안사르 딘(Ansar Dine)은 말리 북부지역을 장악하고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

MOJWA는 마약 밀매와 납치로 비교적 풍부한 테러 자금을 확보하여 지하드 투쟁을 전개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O'Regan 2010, 1-2). MOJWA의 병력구조는 투아레그족을 중심으로 아랍계 모리타니아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사헬지역 국가 출신과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조직되어 있다. MOJWA는 2011년 10월 알제리 Tindouf 난민 캠프 서방 구호 요원 3명의 납치를 시작으로 테러 활동을 필두로 2012년 3월 경찰서 자살 폭탄 트럭 공격, 2013년 5월 2건의 니제르 자동차 자살 폭탄 테러, 2016년 10월 니제르 미국인 구호요원 납치 등 수많은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Le Monde 16/10/16).

안사르 딘과 서부아프리카 지하드 통일 운동은 투아레그족 독립을 위한 민족해방단체인 MNLA(Mouvement National pour la Libération de l'Azawad)와 연합하여 2012년부터 말리 북부 전략 요충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안사르 딘은 MOJWA 및 AQMI(AL-Qu'ida au Maghreb islamique) 사이의 관계 악화로 결별하고 2014년부터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치고 있던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013년 3월에 미 국무부는 안사르 딘을 국제 테러조직으로 이미 지정했으며 말리 정부군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여 수십 명의 정부군을 처형하고 납치했으며 그리고 말리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New Daily 15/10/27).

사하라 이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이념과 종교 나아가 종족과 정치체제, 마약과 밀수 등 경제적 이해 그리고 알 카에다와 협력과 같은 국제 테러리즘과 연계성 등이 얽혀 있는 매우 복잡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 지역 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IV. 사하라 이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 배경

1. 중동국가에 의한 아프리카 이슬람교육문화 지원정책: 급진 이슬람주의 확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확산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슬람 급진주의(radical Islam)의 확산이다. 원래 아프리카에 이슬람이 전해진 이후 아프리카 이슬람주의는 급진적이지 않았으며 각 지역의 전통 및 풍습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온건한 이슬람주의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코란 경전의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와하비즘(Wahhabism)이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동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아프리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Gatsiounis 2012). 와하비즘은 현대식 교육을 금지하고 매우 엄격한 복장 규칙, 전통 이슬람식 사회적 관계 강요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히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급진주의 이슬람주의를 말한다. 와하비주의 이슬람 성직자들은 이슬람을 전통적인 교리나 율법이 아닌 현실적 방법으로 통해 신과 합일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수피즘(Soufism)을 이슬람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며 이단으로 규정하며 철저히 배격하였다. 결국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은 아랍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이 바탕이 된 급진주의 이슬람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Ali 2016, 7-8).

와하비즘적 급진주의 이슬람은 1970년대에 동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Zanzibar 한 도시의 이슬람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무려 연간 1억 달러를 지원하여 이슬람 사원은 물론이고 이슬람 초중등 학교 및 고등학교, 이슬람 인문사회문화센터, 자선단체 그리고 'Muslim World League'와 같은 단체와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Manson 2012). 부유한 급진주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재정지원은 해마다 배로 증액되었으며 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었다. 쿠웨이트에 문을 연 '아프리카 무슬림 센터 (L'Agence des musulmans d'Afrique)'가 이러한 정책의 상징적 결실이다. 이 센터는 케냐,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짐바브웨 등 5개 국가의 이슬람 신자들을 위한 중심 교육 센터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Zanzibar 자치 정부와 협약을 맺어 Zanzibar에 대학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약 1200명의 학위를 배출 했다(Panafrican News Agency 98/07/26). 사우디아라비아는 말리, 차드, 나이지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이슬람 사원 건립, 이슬람센터 설립, 이슬람 종교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신자들의 라마단 행사 지원과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급진 이슬람주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실패로 인한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된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어 반정부적 과격한 무력투쟁을 불리일으키게 되었다. 지금의 이 모든 고통과 불만이 지금의 부패한 세속정치체제 때문이며 이를 타파하고 코란 경전의 율법에 따라 순수한 통치체제가 이루어져야 현재의 차별과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는 급진 이슬람주의 메시지는 매력적이다.

2. 국가실패

국가실패란 정치-사회학적으로 국가가 부패와 무능력 등으로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Patrick 2007). 국가실패를 다른 말로 국가 취약성(Fragility)으로도 말하며 이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Failed States Index' 지수⁵⁾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5〉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2018년 국가실패지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높다. 특히 남수단이 113.4로 세계 1위를 필두로 소말리아 113.2로 2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111.4로 5위 등 10위 안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상위 60위 국가 안에 35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들 국가 중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차드, 짐바브웨, 기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기니-비소, 케냐, 부룬디, 에리트레아 등 20위 안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국가들이 14개 국가나 된다.

5) Failed States Index 지수: 사회, 경제, 정치 등 총 3개 영역의 인구 압력, 난민, 지속적 피난, 집단적 불만, 불평등 발전, 빈곤과 경제적 쇠락, 국가의 불법화, 비정통화, 공공서비스 악화, 법치와 인권의 악화, 국가 내 국가에서 공안조직의 작동, 지도층의 파벌화, 외부의 개입 등 총 12개 지표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각 지표마다 0점에서 1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최저 0점에서 최고 120점을 사이로 지표가 높으면 취약성이 높고, 지표가 낮으면 취약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인택 2016, 7).

〈표-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실패지수 상위 60위 국가 및 전체 순위

Rank	Country	2018 score	Rank	Country	2018 score	Rank	Country	2018 score
1	South Sudan	113,4	21	Niger	96,2	41	Zambia	87,2
2	Somalia	113,2	22	Myanmar	96,1	42	Djibouti	87,1
3	Yemen	112,7	23	Cameroon	95,3	43	Gambia	87,1
4	Syria	111,4	24	Uganda	95,1	44	Lebanon	86,8
5	Cent. African Rep.	111,1	25	Libya	94,6	45	Burkina Faso	86,5
6	DRC	110,7	26	Cote d'Ivoire	94,6	46	Venezuela	86,2
7	Sudan	108,7	27	Mali	93,6	47	Philippines	85,5
8	Chad	108,3	28	North Korea	93,2	48	Malawi	85,5
9	Afghanistan	106,6	29	Rep.of the Congo	93,1	49	Togo	85,2
10	Zimbabwe	102,3	30	Liberia	92,6	50	Sri Lanka	84,9
11	Iraq	102,2	31	Mauritania	92,2	51	Papua New Guinea	84,8
12	Haiti	102,0	32	Bangladesh	90,3	52	Iran	84,3
13	Guinea	101,6	33	Angola	89,4	53	Cambodia	84,0
14	Nigeria	99,9	34	Rwanda	89,3	54	Madagascar	83,6
15	Ethiopia	99,6	35	Sierra Leone	89,1	55	Equat. Guinea	83,4
16	Guinea-Bissau	98,1	36	Egypt	88,7	56	Solomon Islands	83,1
17	Kenya	97,4	37	Mozambique	88,7	57	Comoros	82,6
18	Burundi	97,4	38	Timor-Leste	88,3	58	Turkey	82,2
19	Eritrea	97,2	39	Nepal	87,9	59	Guatemala	81,8
20	Pakistan	96,3	40	Swaziland	87,5	60	Laos	80,7

출처: State Fragility in 2018, Fragile States Index 2018 재구성 (음영 처리된 국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국가실패지수 상위 30위 안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GTI(Global Terrorism Index) 임팩트 지수는 남수단(6.821/14위), 소말리아(7.654/7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6.394/19위), 콩고민주공화국(6.967/13위), 차드(5.269/34위), 나이지리아((9.009/3위), 에티오피아(5.939/24위), 케냐(6.169/22위), 부룬디(5.637/28위), 니제르(6.316/20위), 카메룬(6.787/15위), 우간다(4.319/45위), 코트디브와르(3.701/54위), 말리(5.88/25위), 콩고공화국(4.04/48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Global Terrorism Index

2017, 46). 우간다(4,319/45위), 코트디부와르(3,701/54위), 콩고공화국(4,04/48위) 세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GTI 임팩트 지수 5.0 이상의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실패지수가 월등히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이 강한 국가들이다. 즉 국가실패지수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 실패지수가 높은 국가는 대부분의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이다. 군대와 경찰 등 치안유지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이를 대체해 줄 다른 대안을 강력하게 모색하게 된다.

국가실패는 테러리스트 집단들의 활동에 필요한 불법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주요 재원은 담배, 마약 밀매, 인질 납치를 통한 자금 마련, 인신매매, 석탄, 목재 등 자원 밀매 등이다. 테러단체들의 이러한 불법 범죄행위가 국가실패로 인한 치안기능의 부재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테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발전과 분배 등 국가의 경제적 기능의 마비로 경제적 차별과 소외, 그리고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유일한 대안으로 급진 이슬람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사헬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급속한 사막화와 극심한 가뭄, 심각한 물 부족과 이로 인한 식량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막화 현상은 가뭄과 식량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종족갈등을 발생시켜 무력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구의 1/3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이며 이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 토양이 되고 있다(Devlin-Foltz 2010, 1-2). 특히 소말리아, 니제르, 말리 등은 이슬람교도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국가실패지수(25위 이내) 및 GTI임팩트 지수(5-6 이상)으로 높은 국가이다.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국가실패지수 순위 14위, GTI 임팩트 지수 9.009), 에티오피아(국가실패지수 순위 15위, GTI임팩트 지수 5.939), 차드(국가실패지수 순위 8위, GTI임팩트 지수 5.269) 등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실패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공백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파고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즉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 국가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해 줌으로써 쉽게 그들의 주장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들 국가들에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혁신과 발전을 통한 국가실패지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무력분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통적 안보환경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GTI에 의하면 2002년-2016년 동안 나이지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테러 공격으로 약 35,5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2월에도 약 110명의 여학생을 납치하는 등 테러 공격을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다(경향신문 18/02/22).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대 테러 공동 군사작전으로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이 저지되고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지만 보코 하람과 알 샤밥 그리고 안사르 딘 등 대표적 테러단체들은 오히려 더욱 잔인하고 강력한 테러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즉 공동 군사작전만으로는 테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배경에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중동 급진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진주의 이슬람 교육, 종교, 문화 지원정책의 영향이다. 와하비즘으로 통칭되는 급진 이슬람주의는 아프리카 전통 온건 이슬람주의인 수피즘을 이단이라 규정하며 철저히 배격하며 중동의 문화와 전통이 깊이 스며든 급진적 이슬람주의를 아프리카에 확산시키고 있다(Megan 2017). 둘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실패로 인한 국가기능의 상실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타도하고 엄격한 이슬람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순수한 이슬람 국가건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확산은 아프리카의 내부적 문제와 국제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즉 아프리카와 국제사회가 매우 세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전략적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구 강대국들의 개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서구 열강들의 개입을 신 신식민지 지배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난하며 아프리카 주민들의 지지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석 2015, 15). 둘째,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의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지역 안보 문제를 포괄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이한규 2015, 6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체 및 지역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효과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대 테러 군사작전은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군사작전에 패퇴한 테러리스트들은 주민들 속에 잠입하여 게릴라식 공격과 자살 폭탄 공격을 주로 사용한다. 대 테러 대응군은 주민들과 테러리스트의 구분이 쉽지 않고 또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무차별적 공격으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되는 비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더 동조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동석 2015, 14). 넷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온건 이슬람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그리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확산을 저지시켜야 한다(이한규 2015, 76). 다섯째,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약점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폭력적 이슬람 교리를 논박하고 지지자들의 주장을 붕괴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산시켜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서정민 2008, 100). 여섯째, 국가실패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 스스로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의한 피해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권유경. 201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종족갈등과 빈곤. 국제개발협력 2, 177-197.
- 김동석. 2015. 아프리카 극단주의 무장 활동에 대한 분석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24, 1-20.
- 김동석. 2015. 아프리카 분리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한 고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44, 49-73.
- 김상범. 2002. 국제테러대응: 테러리즘의 발전 추세와 미래 양상. 국방연구 45(1), 123-155.
- 김은경. 2017. 국제적 대 테러 연합의 효율성 결정요인: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AMI SOM)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3), 3-30.
- 김현아. 2014. 아프리카의 종족주의와 내부 식민주의, 영어영문학연구 40(4). 43-65.
- 서정민. 2008. 테러리즘과 알카에다즘: 국제테러의 구조적 배경. 한국중동학회논총 28(2), 89-111.
- 서정민. 2014. 보코 하람과 이슬람 종교의 정치적 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3), 93-115.
- 윤민우. 201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기원과 전략적 특성, 그리고 최근 동향에 관하여. 출처: <http://www.kcms.or.kr/> (검색일: 2018.07.21.).
- 이한규. 2015. 아프리카 테러집단 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보고서.
- 조성택 · 김선정. 2015. 아프리카 분쟁과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8(4), 137-158.
- 한인택. 2016. 아프리카 지역 위협요인의 분석: 국가실패와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외교부 정책용역연구보고서.
- Aapengnuo, Clément Mweyang. 2010. La mauvaise interprétation des conflits ethniques en Afrique. Bulletin de la Sécurité Africaine 4, 1-5.
- Adekanye, J. Bayo. 1995. Structural Adjustment, Democratization and Rising Ethnic Tensions in Africa. Development and Change 26(2), 355-374.
- Ali, Abdisaid M. 2016. Extrémisme islamiste en Afrique de l'Est. Bulletin de la Sécurité Africaine 32, 7-8.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7. Boko Haram(The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 IN FOCUS 7-5700, 1-2.
- Devlin-Foltz, Zachary. 2010. Africa's Fragile States: Empowering Extremists, Exporting Terrorism. Africa Security Brief 6, 1-2.
- Elbadawi, E. and Sambanis N. 2000. Why are there so many civil wars in Africa?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t conflict.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9(3), 244-269.
- Gatsiounis, Ioannis. 2012. After Al-Shabaab. Current Trends in Islamist Ideology 14, 74-89.
- Goita, Modibo. 2011. West Africa's Growing Terrorist Threat: Confronting AQIM's Sahelian Strategy, Africa Security Brief 11.
- Herbst J. 2000. Economic incentives, natural resources and conflict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9(3), 270-294.
-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18. Preventing Boko Haram Abductions of Schoolchildren in Nigeria. Crisis Group Africa Briefing 137, 1-3.
- Kaufmann, Chaim. 1996. Possible and Impossible Solutions to Ethnic Civil Wars. International Security 20(4), 136-175.
- Lim, Gi-Dae and Kim Kwang-Su. 2017. A Study on the Recent Situation and Reorganization Process of Terrorist Groups in Maghreb and Sahara.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51, 103-144.
- Le Monde. 2016. 10. 16. Niger: ce que l'on sait de Jeffery Woodke, l'Américain enlevé dans le centre du pays.
- Manson, Katrina. 2012. Extremism on the rise in Zanzibar, Financial Times, 출처: <https://www.ft.com/content/c85b0054-42c0-11e2-a4e4-00144feabdc0> (검색일: 2018. 07. 22.).
- Mark, Wilson. 2018. Nigeria's Boko Haram attacks in numbers-as lethal as ever, BBC News(18/01/24)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2735414> (검색일: 2018. 07. 18.).

- Megan, Specianov. 2017. Who Are Sufi Muslims and Why Do Some Extremists Hate Them?, The New York Times, Nov. 24, 2017. 출처: <https://nyti.ms/2wkSPZt> (검색일: 2018.07.24.).
- New Daily. 2015. 코엑스 폭파 협박한 안사르 알-딘의 정체, 출처: <http://bit.ly/2wjTx9o> (검색일: 2018. 07. 25).
- O'Regan, Davin. 2010. Cocaine et instabilité en Afrique: Enseignements tiré de l'Amérique Latine et de la Caraïbe. Bulletin de la Sécurité Africaine 5, 1-2.
- Ostebo Terje. 2012. Le Militantisme islamique en Afrique. Bulletin de la Sécurité Africaine 23, 3.
- Panafrican News Agency. 1998. African Muslim Agency Sets up College in Zanzibar, 출처: <https://allafrica.com/stories/199807260023.html> (검색일: 2018. 07. 24.).
- Patrick, Stewart. 2007. "Fail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mpirical Questions and Policy Dilemma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9(4), 644-662.

- 경향신문 www.khan.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투고일: 2018.08.09. ● 심사일: 2018.08.10. ● 게재확정일: 2018.08.23.

| Abstract |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in Sub-Saharan Africa and Islamic Extremism Terrorism

Lee Hoyou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adical Islamic terrorism that has emerged as a new threat to the security of sub-Saharan Africa. This study argues that the main reasons are the spread of radical Islam, represented by Wahavism, and the state failure in the region. The state failure stems mainly from the legacy of colonialism, that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re not based on the nation, which in turn result in the lack of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state-building. To solve the problem, they ne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political incompetence, corruption, poverty, and politic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In addition, the assistance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provided with a greater sophistication and continuity.

〈Key words〉 Islamic Extremism, Ethnic conflicts, Islamic Extremism Terrorism, Sub-Sharan Africa, State Failure